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 논리와 사례

주 장 환*

•요 약•

이 논문은 현존하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4차원적 유형학은 기존 2차원적 유형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설계된다. 그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통합, 분화, 순환의 방식 그리고 그 범위 등 4개의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정치 엘리트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두 16개 하부 유형으로 전 세계 정치 엘리트는 분류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핵심적인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예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엘리트 유형들의 이념형의 설정과 실재형의 대응을 통해 새로운 유형학의 적실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유형학은 전 세계 정치 엘리트의 다양한 현실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개념적 도구로써 기능할 것이다.

주제어 : 정치 엘리트, 4차원적 유형학,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와 방식

I. 서론

이 글은 정치 엘리트 유형 연구 분야에 ‘새로운’ 분류법을 제기하고자 기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분류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 엘리트 유형의 특징과 그 변화를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형학(typology)을 제시한다. 동시에 이 새로운 유형학의 검증 차원에서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응시킴으로써 그 논리 및 실재적 차원에서의 적실성을 주장한다.

정치 엘리트는 정치 및 정책 영역에서 각 조직 및 조직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이 논문은 2023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겸 유라시아 연구소 소장

불균형적인 역량을 소유한 소규모의 상대적으로 응집력과 안정성을 갖춘 그룹 혹은 개인, 혹은 국가 공공 정책 결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인사 내지 특정 정책의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사로 정의된다.¹⁾ 정치 엘리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종속변수로 상정하는 경우이다. 즉 사회 변화의 산물로서 정치 엘리트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 엘리트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형성과 그 변천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²⁾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즉 정치경제 혹은 사회적 변화에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엘리트를 상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다.³⁾ 이렇듯 정치 엘리트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회현상의 원인이자 결과의 주요한 요인으로써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은 상술한 구분에 따르면 전자에 속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연구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형학이다. 일반적으로 ‘유형’은 여러 다양한 관찰의 결과인 현상들을 그 보다 작은 수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런 측면에서 이 방법은 사회과학 현상의 ‘발견’을 위해서 사용될 때 더욱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 엘리트와 관련된 유형학은 크게 또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바로 엘리트의 특성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념 중심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특정 국가나 사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편향을 노정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중국 정치 엘리트 연구에서 고안된 혁명 간부(revolutionary cadre)와 기술관료(technocrat), 정치적 기술관료(political technocrat), 일반 간부(generalist cadre) 등이 대표적이다.⁵⁾

1) Burton, M. and Higley, J. “Elite Settl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no. 3(1987), p.296; Best, H. and Higley, J. “Introduction,”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p.2.

2) Burton, M. and Higley, J. “The Study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2001), pp.181-199; Ruostetsaari, I. “Social Upheaval and Transformation of Elite Structures: The Case of Finland,” *Political Studies*, vol. 54, no. 1(2006), pp.23-42; Milner, M., Jr., *Elites. A General Model*, Cambridge: Polity Press, 2015.

3) Mawdsley, E. and White, S. *The Soviet Elite from Lenin to Gorbache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linder, A. *After the Music Stopped. The Financial Crisis, the Response, and the Work Ahead*. New York: Penguin, 2013; Best, H. and Higley, J., eds., *Political Elites in the Transatlantic Crisis*, London: Palgrave, 2014.

4) Hoffmann-Lange, U. “Theory-Based Typologies of Political Elites,”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p.53.

5) Lee, H. Y.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Technocracy in Socialist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Zang, X.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technocracy in China: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ral committees of the CCP,” *Journal of Communist*

따라서 그 국가나 지역의 맥락에는 그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특수성 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즉 일정한 이론적 가정에 입각하여, 엘리트를 구분할 수 있는 복수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분석틀 중심의 접근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어온 것은 두개의 연속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의 가능한 조합으로 구성된 2차원 즉 2×2 매트릭스 형태이다. 이 방법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지역에 대한 분석에도 활용되었다.⁶⁾

이렇게 봤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 두 번째의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먼저 현실적으로, 기존 유형법이 현실의 정치 엘리트들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유형법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개별 정치사회체제와 특정 정치 엘리트 유형과의 대응에 집착했다. 따라서 이 ‘단순한’ 정치사회체제를 초월하는 정치 엘리트 유형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사회체제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소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정치 엘리트 유형의 다양성도 필요해진 것이다.⁷⁾ 보다 자명한 사실은 현 시기의 정치 엘리트는 기존 대부분의 유형법에서 활용했던 2차원 즉 4가지 유형보다는 더욱 다양하다는 가설적 추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검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논리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기존 유형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변수를 논리적으로

Studies and Transitional Politics, vol. 15, no. 3(1999), pp.101-113; 주장환,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술 관료의 쇠퇴와 ‘일반 관료’의 부상”,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pp.69-97.

- 6) Ruostetsaari, I. “Social Upheaval and Transformation of Elite Structures: The Case of Finland,” *Political Studies*, vol. 54, no. 1(2006), pp.23-42; Joo, J.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2(2013), pp.255-279;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21, pp.207-225;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2000; Higley, J. and Burton, M. *Elite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주장환, “다른 과정, 같은 결과: 중러 정치 엘리트 전환”,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pp.111-129.
- 7) 이점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개념 중심의 유형법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지수 중심의 접근법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장환, “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양자도약?”, 『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pp.236-240을 참조 바람.

무리하게 연계시킨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⁸⁾ 즉 지나치게 2차원적 유형법의 틀을 고수하려는 편향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대표적인 2차원 유형법에 근거한 연구들은 논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여러 변수를 묶는 방식이 존재했다.⁹⁾ 즉 4가지 변수의 논리적인 조합은 16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 중 친화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들은 묶는 방식을 통해 4가지 변수에 4가지 유형이라는 논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적 귀결이 정합적인지 아니면 비약이나 축소가 존재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현실적으로 여러 변이들의 발생 가능성 내지 출현으로 이미 더욱 다양해진 정치 엘리트 유형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분석할 보다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틀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존 유형법의 수정을 강제하고 있다.¹⁰⁾

이 글은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서 2장에서 기존 2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의 문제점을 현실 및 논리적으로 지적 및 정리한다. 3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제시하고, 그 현실태를 대응시킴으로써 그 설명력과 적절성을 검증한다. 결론에서는 이 글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진행하고, 이 연구에 대한 한계와 이에 기반한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

II. 정치 엘리트 유형에 대한 2차원적 분류법의 논리 및 사례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 장은 기존 정치 엘리트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2차원적 유형법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유형법을 그 논리와 사례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밝힐 것은 만약 이 유형법에 일정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그 대부분은 ‘정치 엘리트’라는 현상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흡사 지속적으로 분열을 거듭하여 고차원적으로 발

8)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9)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pp.101-126;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21, pp.207-225.

10) 이 필요성은 여러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을 특히 통시적으로 비교할 때 더욱 높아진다. 특히 비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들은 그 차원이 낮을수록 여러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된다. 이런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는 주장환, “다른 과정, 같은 결과: 중러 정치 엘리트 전환”,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pp.111-129를 들 수 있음.

전하는 생물의 관찰을 위해서는 이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고배율의 현미경이 필요해진 상황과 유사한 것이다.

이 장에서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2차원적 유형법은 바로 ‘엘리트의 통합, 분화 그리고 순환을 체제 유형과 결합한 모델(A Model Relating, Elite Unity, Differentiation, and Circulation to Type of Regimes)’이다. 이 모델은 통합, 분화 그리고 순환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정치 엘리트를 구분했다. 세 가지 범주가 2차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순환의 범위와 그 방식을 각각 분화와 통합과 논리적으로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즉 순환을 또 그 범위와 방식 등 두 가지의 변수로 나누고 이를 분화의 정도와 통합의 정도와 결합시켰다. 이렇게 2차원으로 범주를 구성한 후, 통합 정도의 강약과 순환 범위의 넓고 좁음을, 분화 정도의 고저를 순환방식의 급진성 정도와 결합시켜서 정치 엘리트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각각의 엘리트 유형을 특정 체제 유형과 대응시키고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정 체제 유형과 대응되는 정치 엘리트 유형이 나타났다. 첫째, 동의/고전형(consensual/classical) 엘리트 유형이다.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순환의 범위 그리고 높은 분화 정도와 점진적인 순환의 방식이 특징인 상황에서 생성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은 감성보다는 이성, 당파성보다는 합리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18세기 독립전쟁을 벌인 미국 엘리트, 19세기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 시기 엘리트들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정치 엘리트 유형은 안정적인 대의체제의 전형적인 것으로 대응되고 있다.

둘째, 이념/대체형(ideocratic/replacement) 엘리트 유형이다.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순환의 범위를 가진 것은 동의/고전형과 같다. 그러나 이 유형은 분화의 정도가 낮으며 동시에 급진적인 순환의 방식에 의해 생성된다. 대체로 매우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체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은 일사분란하며,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을 벌인 20세기 베트남의 정치 엘리트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주의 혹은 후-전체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 유형으로 대응되고 있다.

셋째, 분절/재생산형(fragmented/reproduction) 엘리트 유형이다. 높은 분화 정도와 점진적인 방식의 순환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의/고전형 엘리트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유형은 약한 통합 정도와 좁은 범위의 순환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념/대체형보다는 낮은 수준의 중앙 조직 혹은 체계 하에서의 파벌 혹은 그룹간의 연합 내지 연대 형태의 체제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들 간의 경쟁이 기본적인 행동의 준칙이며, 필요나 이

익에 따른 협력이 보조적인 준칙이다. 정치 엘리트는 상당한 이질성을 가진 부문들 간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7세기 명예혁명 전후의 영국 그리고 19세기 제헌 혁명 이전 시기 스웨덴의 정치 엘리트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불안정한 민주주의 혹은 단기간 유지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엘리트 유형으로 제시된다.

넷째, 분화된/준-대체형(divided/quasi-replacement) 엘리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약한 통합 정도와 좁은 순환의 범위 그리고 낮은 분화의 정도와 급진적 순환의 방식을 그 특징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각 엘리트 그룹의 이질성은 매우 높으며, 정치 엘리트층 내부의 분열 양상이 심각하며, 이들간의 공통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당히 폭력적인 형태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매우 가능성이 높다. 혁명이나 내외부 전쟁 상황에 처해있는 엘리트, 예를 들면 19세기 내전 상황의 중국과 20세기 혁명 상황 하에서의 쿠바를 들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와 대표적으로 조응하는 정치 엘리트 유형으로 주장된다.¹¹⁾ 이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통합정도/순환의 범위	
		강함/넓음	약함/좁음
분화정도/ 순환의 방식	넓음/점진적	동의형/고전형 (견고한 민주주의)	분절형/재생산형 (불안정한 민주주의 혹은 단기간 유지되는 권위주의)
	좁음/급진적	이념형/대체형 (전체주의 혹은 후 전체주의)	분화된/준-대체형 (권위주의)

출처: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2000, p.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그림 1> 엘리트의 통합, 분화 그리고 순환을 체제 유형과 결합한 모델

한편, 상술했듯이 여러 기존 연구에서 그 적실성을 검증받아오던 이 모델의 문제점이 몇 가지 측면에서 노정되었다. 다른 모델에서도 발생한 문제점과 유사하게, 그 시작은 현실에서 발견되었고, 그 원인은 논리에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 모델의 적실성에 일정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상술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모델에서 결합되어 한

11) Higley, J.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2000, pp.1-21.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설정된 통합의 정도와 순환의 범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즉 중국 공산당 2012년 제18기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 시기보다 통합의 정도는 낮아졌으나, 순환의 범위는 증가했다. 이런 유형은 기존 모델에서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¹²⁾

이 대표적인 예는 바로 기존 모델에서 논리적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화와 통합 범주에 순환의 방식과 범위를 결합시킨 논리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논리적으로 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이고, 그 반대일 경우 급진적이라는 추론은 직관 논리적이라고 있다. 또 통합의 정도가 강할수록 순환의 범위는 낮고, 그 반대일 경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확인되었으므로 기존 논리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방향은 이 글의 제3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지적될 수 있는 논리적 결합은 통합과 순환의 범위를 또 분화와 순환의 방식을 결합시킨 것이다. 즉 통합 정도가 강할수록 순환의 범위는 넓고, 그 반대는 좁으며 또 분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이며, 그 반대는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합의 논리적 결합 역시 현실에서 발견되고 있다. 통합 정도는 약해졌지만, 순환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들 수 있다. 2016년과 2021년 제 6과 7대 카자흐스탄의 총선 결과를 비교했을 때, 순환율을 각각 57.9와 68.6%였다. 순환의 범위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즉 당시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가 독립 이후 장악해온 대통령 직위를 2019년 29년 만에 퇴임하고, 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가 2대 대통령직을 승계한 상황이었다, 권위주의 국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 엘리트 내의 통합 정도가 전자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집권당의 득표 비율이 각각 82.2%와 71.1%로써 전 시기가 더 높다.¹³⁾ 이 같은 사실은 통합과 순환의 범위가 같은 방향으로 연동되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상기한 범주간의 결합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보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문제점은 정치 엘리트 유형과 체제 유형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 모델은 동의/고전형을 견고한 민주주의, 분절/재생산형을 불안정한 민주주의

12) 주장환,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 연구』, 제37권 제3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pp.101-126.

13) 각종 수치 등은 필자가 카자흐스탄 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s://parlam.kz/ru/mazhilis/>; <https://www.election.gov.kz/rus/>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및 작성함.

혹은 단기간 유지되는 권위주의, 이념/대체형을 전체주의 혹은 후 전체주의, 분화된/준-대체형을 권위주의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 이의 적절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체제 유형의 세분화 정도의 미비이다. 이 정치 엘리트와 체제 유형간의 1:1 대응을 상정한 유형법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각국의 대부분 국가의 체제를 포괄하는 것이어야만 과학적 분석의 도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4가지의 체제 유형이 현재 전 세계 각국의 대부분 국가를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모델은 민주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혼합체제(불안정한 형태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체제) 등 4가지 유형으로 전 세계 국가의 체제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법은 20세기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어서, 특히 체제의 혼합화 시대인 21세기에는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 즉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등으로 명명할 수 있는 국가보다는 혼합체제(hybrid-regime)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¹⁴⁾ 따라서 매우 특수한 형태의 체제인 민주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보다 혼합체제에 초점을 맞춘 체제 변동과 이에 부합하는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둘째, 상술한 문제제기와 연동되어 이 모델이 포괄하고 있는 체제 유형의 현실 설명력의 현저한 저하이다. 특히 특정 국가들의 정치 엘리트와 체제 변화를 추적하는 비교 연구에서 체제 유형의 빈약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과 러시아이다. 현상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한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체제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모델에 따른 분석의 결과는 예외 없이 같은 방향으로 정치엘리트와 체제 차원에서 전환하고 있다.¹⁵⁾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 유형간의 차이는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 모델은 없다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 모델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먼저 분화, 통합, 순환의 방식 그리고 순환의 범위라는 4개의 범주를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조

14) 이 같은 추세와 흐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경교,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II: 논의와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pp.331-354를 참조바람.

15)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다른 과정, 같은 결과: 중러 정치 엘리트 전환”,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pp.111-129; 주장환, 연담린, “체제전환기 중·러 엘리트 정치 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른 과정, 같은 결과”, 『Analyses & Alternatives』, 제6권 제3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pp.163-202를 참조 바람.

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2차원에서 4차원의 유형법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모델이 노정한 현실적인 설명력의 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체제 유형을 정치 엘리트 유형과 직접 대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즉 특정 정치 엘리트 유형과 기존의 특정 체제 유형의 대응이 아니라 상술한 보다 세분화된 유형법에 근거한 정치 엘리트 유형과 대응되는 체제 유형을 새롭게 발견하고 개념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무리한 1:1 대응은 과도한 도식화를 초래할 뿐일 것이다.

Ⅲ. 정치 엘리트 유형에 대한 4차원적 분류법: 논리와 사례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엘리트 유형에 대한 4차원적 분류법의 논리와 사례를 제시한다. 이 분류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논리에 의해 설계된다. 첫째, 정치 엘리트 유형의 4차원 분류법의 세부 범주는 통합(integration), 분화(differentiation), 순환의 범위(scope of circulation), 순환의 방식(mode of circulation) 등 4개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정치 엘리트의 세부 유형을 상기 4가지 차원의 구성 요소의 조합을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존 2차원 유형법과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은 현대적인 정치 엘리트 유형 구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범주 중 하나이다. 이해 충돌과 갈등이 상존하는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형식적인 단결을 이뤄내는가가 매우 중요해진 현대 정치의 특징 때문이다. 이 범주는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우선 협상과 타협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대한 규범과 가치 차원에서의 합의와 관련된 것이며, 다음으로 이 합의된 가치를 구현해내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이고도 통합된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¹⁶⁾

분화는 통합과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별개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화는 정치 엘리트를 구성하는 그룹이 더 많아지고, 조직적으로 다양해지며, 기능적으로 전문화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질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가 조직적으로 다양화될수록, 기능적으로 전문화될수록, 서로 간에 그리고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일 수록 종합하면 이질성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는 강화

16) Higley, J. and Burton, M., *Elite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1996, pp.11-12.

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 영역에서는 인구통계 및 정치사회적 차원의 변수들의 이질성을 그 척도로 측정이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 변수들은 측정 가능하기만 하다면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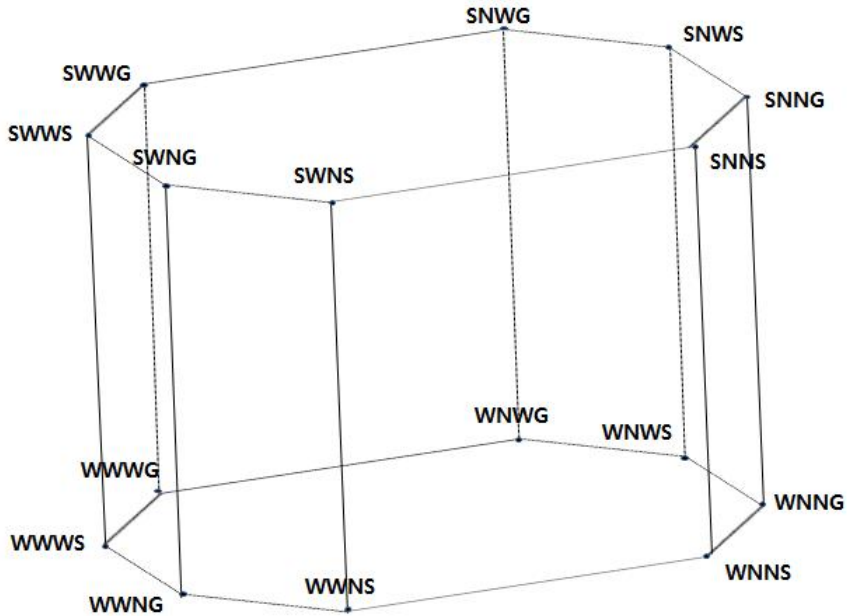
순환은 상술한 두 차원보다는 다소 늦게 정치 엘리트 유형의 주요 차원으로 제기되었고 동시에 국가 사회주의체제의 체제 전환과 관련된 논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범위와 방식이 주요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순환의 범위는 서로 다른 특성의 분화와 통합의 정도를 가진 정치 엘리트들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교체되는지의 문제이고, 방식은 그 과정의 폭력성과 급진성에 관한 것이다.¹⁸⁾

둘째, 이 네 가지의 범주를 상호 연관과 연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즉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순환의 범위와 방식을 통합과 분화와 연계시킨 모델의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은 상호독립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통합 정도의 고저, 분화 정도의 강약, 순환 범위의 넓고 좁음, 순환 방식의 급진과 점진 등 4개의 범주의 논리적 조합으로 기본적으로 4차원의 정치 엘리트 유형법이 생성된다. 따라서 총 16개 종류의 정치 엘리트 유형이 논리적으로 존재 가능하다.

셋째, 역시 제2장에서 2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에서 체제 유형과 정치 엘리트 유형을 직접 맞대응시키면서 발생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이 고리를 끊어낸다. 즉 우선 21세기 들어 발생하고 있는 체제 유형의 다양성을 기존 4가지 유형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이 새로운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에 대응되는 체제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와 명명은 이 글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특정 정치 엘리트와 체제 유형과의 맞대응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는 점은 분명하겠다. 이 글의 구체적인 목적은 정치 엘리트 유형학의 세분화와 과학화이고, 일종의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특정 체제유형과의 대응작업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와 전제하에서 4차원적 정치엘리트 유형법을 형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17) Higley, J. and Burton, M. "The Study of Political Elite Transform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2001), pp.186-187.

18) Hoffmann-Lange, U. "Theory-Based Typologies of Political Elites,"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pp.59-60.



참조: 각 유형의 명칭은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순환의 방식의 수준 순으로 각각 강 (Strong)-약(Weak), 넓은(Wide)-좁음(Narrow), 넓고(Wide)-좁음(Narrow), 점진 (Gradual)-급진(Sudden)의 약자의 조합임.

〈그림 2〉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순환의 방식에 따른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

이 유형법은 모두 16가지의 세부 유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¹⁹⁾ ‘S-W-W-G’형은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의 정도, 넓은 순환의 범위와 점진적인 순환의 방식’의 엘리트 유형이다. 이 유형의 정치 엘리트들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부문과 파벌을 넘어서는 공식과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엘리트 집단 내의 여러 차원에서의 인구통계 및 정치사회적 분화 정도는 높으며, 각 부문 간의 자율성은 상호 존중되고 있다.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는 경쟁과 타협의 규칙과 상징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며, 체제내외의 구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순환의 범위가 넓다는 의미는 친구교체의 비율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는 것이며, 점진적 순환의 방식은 평화적인 즉 기존에 정해

19) 본 연구에서의 사례는 관련 연구의 종류 중 분석틀 즉 가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해당됨. 따라서 그 선정 기준은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이 될 것이고, 동시에 사례 확대를 통한 반례의 등장 가능성은 내재적인 한계임은 자명한 사실임. 사례 연구의 종류와 각각의 한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evy, Jack S. “Case Studies: Types, Designs, and Logics of Inferen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no. 1(2008), pp.1-18을 참조 바람.

진 규칙과 질서에 따라 정치 엘리트의 교체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21세기의 미국과 독일 등의 정치 엘리트가 대표적인 예이다.²⁰⁾

‘S-W-W-S’형은 다른 특성은 상기 유형과 유사한데, 정치 엘리트 순환의 방식이 급진적인 유형이다. 즉 강한 통합 정도와 넓은 분화의 정도 그리고 넓은 순환의 범위를 가진 정치 엘리트들이 급진적 방식의 순환을 ‘체제 내’에서 용인하고 수용하는 경우이다. 안정적인 대의제 국가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급작스런 용퇴와 교체 등의 상황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2016년 한국의 탄핵을 통한 대통령 사임 전후의 한국 등의 정치 엘리트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²¹⁾

‘S-W-N-G’형은 ‘S-W-W-G’형과 비교하면, 순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이다. 여기에서 순환의 범위는 전체 정치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의 집단 내지 파벌 간의 배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대의제 정치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특정 정당이나 파벌의 독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에서 종종 생성되며, 대표적으로 자민당이 창당 이후 55년간 집권당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들 수 있다.²²⁾

‘S-W-N-S’형은 통합 정도와 분화의 정도는 동시에 높고 넓지만, 순환의 범위가 매우 좁아지고 그 방식도 매우 급진적인 유형이다. 즉 기존 헌정 질서나 대의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순환 범위의 감소 인해 정치 엘리트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고, 체제 내보다는 체제외적 역량의 강화로 정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그 방식이 체제 전복이나 쿠데타 등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닌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군부 독재 체제가 시민 역량의 저항 등의 요인으로 지배 엘리트층의 자발적인 양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된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제12대 국회시기를 들 수 있다.²³⁾ 부연하자면, 상술한 네 유형은 모두 대의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순환의 방식이 체제 전복이나 파괴 등의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S-N-W-S’형은 통합 정도는 높으나, 분화의 정도는 약하며, 순환의 범위는 넓으며,

20) 미국 정치 전통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차태서, “분열된 영혼?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미국학논집』, 제54권 제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22, pp.55-98을 참조 바람.

21) 당시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성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정치참여인식 영향 요인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제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pp.343-368을 참조 바람.

22) 일본 정치의 특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제13권 제2호, 일본연구소, 2021, pp.180-205를 참조 바람.

23) 이 시기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략과 프레임”, 『한국사회학』, 제52권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8, pp.1-38을 참조 바람.

순환의 방식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유형이다. 정치 엘리트들이 단일하고 중앙집권적인 당이나 운동조직 등에 대부분 속하고, 이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경우 종종 나타나는 유형이다. 배타적인 단일한 종교나 신념과 조직체계를 우선시 하는 규범과 전통은 통합 정도의 제고에 영향을 주며, 반대로 분화에는 그 충원과 운영 등 차원에서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또 여러 차원의 권력투쟁을 통해 순환의 범위는 넓으며, 그 방식은 급진적이며 폭력을 종종 수반한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 중국 건국 초기의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²⁴⁾

‘S-N-W-G’형은 통합 정도는 강하고, 분화는 수준은 좁으며, 순환의 범위는 넓으며, 순환의 방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유형이다. 상기 유형과 대부분의 특징이 유사하나, 순환의 방식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것이 차별점이다.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독재가 일정하게 안정화된 이후의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독립 이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독재 체제가 수립되고 난 이후 그 상태가 상당정도 안정화 된 2004년과 2007년의 제3대와 4대 의회시기의 정치 엘리트 유형을 들 수 있다.²⁵⁾

‘S-N-N-G’형은 상술한 유형과 대부분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순환의 범위가 좁다는 차이가 있다. 또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조직에게 매우 유리한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의 집권이 가능한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상호교환하면서 특정 정당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던 싱가포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2011년 ‘사실상의’ 총선 패배 이전의 시기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라는 특정 정당만이 사실상의 싱가포르 정치 영역에서의 단일한 행위자였다. 동시에 정치 엘리트의 순환 역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생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²⁶⁾

‘S-N-N-S’형은 통합 정도는 강하고, 분화 정도는 좁으며, 순환의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상기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순환의 방식이 급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유형은 강력한 개인 혹은 당이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력투쟁과 숙청 등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상황에서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문화대혁명과 린바오(林彪)의 쿠데타 진압이후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24) 당시 중국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Lieberthal, K.,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London: W·W·Norton & Company, 2004, pp.57-76을 참조 바람.

25) 이 시기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상철,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 『중소연구』, 제33권 제4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pp.211-220을 참조 바람.

26) 이 시기 싱가포르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최인아, “싱가포르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19, pp.120-125를 참조 바람.

위해 구성된 1973년부터의 제1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기를 들 수 있다.²⁷⁾

‘W-W-N-G’형은 통합 정도는 약하고, 분화정도는 넓으며, 순환의 범위는 좁으면서 그 방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특징을 가진 정치 엘리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상당한 수의 서로 경쟁하는 과별 내지 기능적 부문에 의해 작동되고, 상호 교차되거나 상호 침투하는 정책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체계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권위체나 합의된 정치의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 차원에서 매우 분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순환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다. 한편 넓은 분화정도에 기인하는 정치 및 기능적 차원에서의 다원주의는 이 체제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의 방식의 점진적이면서도 평화적인 특징을 일정하게 보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1978년 이후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들을 들 수 있다.²⁸⁾

‘W-W-N-S’형은 상기 유형과 다른 특징은 유사하나, 순환의 방식이 더 급진적이며, 폭력적인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엘리트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종족주의적 성향과 권위주의적 전통이 공고한 상태에서 불안정적으로 존재했던 2015년부터 2021년 군부 쿠데타 전까지의 미얀마 민간정부 집권 시기의 정치 엘리트들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이 시기 정치 엘리트 유형과 2021년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어떤 관련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유형의 미얀마 정치 엘리트 유형이 최소한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더 강력한 배제와 통치 능력 측면에서의 실패했다는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평가된다.²⁹⁾

‘W-W-W-S’형은 상기 유형과 다른 특징은 유사하나, 순환의 범위는 더욱 넓은 경우 존재하는 정치 엘리트 유형이다. 즉 상기 유형과 달리 일정한 체제내의 민주화의 정도가 정치 엘리트 순환 범위가 넓어지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으나, 순환 이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거 부정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표출 양태이다. 대표적으로 1932년 이후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고 1988년에는 민간인 출신 총리의 탄생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현재까지 성공과 실패의 쿠데타를 22차례 겪고 있는

27) 이 시기의 순환율은 중국 정치사상 최저인 38.1%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Joo, J.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2(2013), pp.261-264를 참조 바람.

28) 여기에서의 개혁·개방기는 시진핑 집권 이전 시기를 의미하며 중국 정치 엘리트들이 이 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Joo, J.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2(2013), pp.271-275를 참조 바람.

29) 이 시기 미얀마 정치 상황과 변동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문기홍,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미얀마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후퇴현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1권 제2호, 아시아연구소, 2021, pp.217-246을 참조 바람.

태국 정치 엘리트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⁰⁾

‘W-W-W-G’는 상기 유형과 다른 특징은 유사하나 순환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상태에서의 정치 엘리트 유형이다. 즉 상기 유형과 유사한 정치 변동의 상황에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기제가 아닌 투표나 타협 등의 방식으로 정치 엘리트의 순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키르기스스탄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기간 키르기스스탄은 헌정체제의 변화를 여러 명시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화했다.³¹⁾

‘W-N-N-S’형은 통합의 정도가 약하고 분화의 정도 역시 좁으며, 순환의 범위는 좁으며 그 방식이 급진적인 정치 엘리트 유형이다. 이 유형의 정치 엘리트는 서로 배타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조차 한 몇 개의 잘 조직된 진영에 소속되어있다. 그 기능 및 정치사회적 분화의 정도는 매우 낮다. 전체 엘리트층을 아우를 공통의 정치 게임의 규칙과 관례 혹은 신념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 내 경쟁은 종종 폭력성을 동반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억압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순환의 범위는 좁으며 동시에 그 방식은 급진성과 폭력성을 동반한다. 아랍민족주의가 가장 먼저 형성되었으면서도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상황을 겪었고, 2012년의 아랍의 연쇄적인 민주화 시위이후에도 정권이 붕괴되지 않은 시리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³²⁾

‘W-N-N-G’형은 상기 유형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나, 그 순환의 방식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여기에서 순환의 방식의 특성은 내전과 쿠데타 등의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급변한 튀르키예의 정치 상황 하에서의 정치 엘리트를 들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주의로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³³⁾

30) 최근 태국 정치 상황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현시내,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동남아시아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동남아학회, 2022, pp.233-279를 참조 바람.

31) 이 같은 키르기스스탄 정치 변동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영형,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투표와 정치 시스템의 변화: 낙관주의에 기초된 계획 오류”,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제6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pp.391-422를 참조 바람.

32) 시리아의 전반적 그리고 최근의 정치 상황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상수, “시리아의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지역과 정치』, 제5권 제2호,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pp.27-66.

33) 이 같은 튀르키예의 정치 변동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오종진, 강지선, “터키 공화국의 리더십과 정치문화변동 연구: 아타튀르크와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0권 제2호, 중동문제연구소, 2021, pp.67-102.

‘W-N-W-G’형은 이 유형의 정치 엘리트는 통합의 정도는 약하고, 분화의 정도 역시 좁아서 전형적인 ‘분리된’ 유형이다. 그러나 순환의 범위는 넓고, 그 방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다. 매우 분리되어있고 상호 대립적인 유형에서 ‘직관 논리(intuitional logic)’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아랍의 봄의 시작점이 되었던 튀니지의 예는 2014년 개헌에서 2022년 개헌 전까지의 상황은 이 유형의 정치 엘리트가 존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시민사회, 이슬람 정당과 세속주의 정당 간에 분명한 구별은 있었고, 그 이전시기에 비해 기능 및 조직적 분화 정도가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독재체제에 대한 반대와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갈등보다는 합의의 정치 규칙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14년 개헌으로 인해 다당제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안정적으로 치뤄져 상당히 넓은 수준의 엘리트 순환이 이뤄졌고, 그 방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었다. 물론 2022년 이후 상황이 다시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소한 2014년에서 2022년까지의 상황은 이 유형의 정치 엘리트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³⁴⁾

‘W-N-W-S’형은 상기 유형과 다른 특징들은 대동소이하나,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방식이 급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런 상황은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dafi) 이후 리비아 즉 2012년부터 2014년 시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카다피 축출 이후 불안정하지만 단기간 찾아온 정치 변동의 분위기에 따라 리비아는 2012년 첫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제한의회가 수립되는 등 정치 엘리트의 순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 엘리트 통합 정도의 약함과 분화 정도의 좁음 등의 상황은 극복되지 못했다. 그 결과는 2014년부터 2차 내전이라는 정치 불안정의 상황으로 진입하였고, 정치 엘리트의 순환 방식은 극도로 급진적이며 폭력화되었다.³⁵⁾

IV. 결론

이 글은 더욱 복잡다단해진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 및 발견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에 대

34) 이 시기 튀니지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안소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2, pp.29-64를 참조 바람.

35) 이 시기 리비아 정치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이성수, “까다피 이후 리비아의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pp.127-150을 참조 바람.

한 논의를 진행했다. 즉 정치 엘리트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해졌는데, 이를 관찰할 개념적 도구는 여전히 2차원적 유형법이기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복잡다단화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관찰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이후 목도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의 퇴조현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예상치도 못한 권위주의 체제의 하부 변종의 등장과 그 생명력이 동시에 관찰된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듯 복잡다단화된 체제의 사실상의 운영자들인 정치엘리트 역시 그 흐름을 반영하게 됐다고 이 글은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2차원 유형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정치 엘리트 유형들이 관찰되게 되었다.

이 글은 논리적 차원에서 기존의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이라는 세부 범주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 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에 대한 부정과 정치 체제와 엘리트 유형간의 비 대응 관계 규정 등을 통해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물은 통합, 분화, 순환의 범위 그리고 순환의 방식이라는 4가지 범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대응되는 모두 16가지 종류의 정치 엘리트 유형이 이념형으로써 정립되었다. 즉 통합의 강약, 분화의 넓고 좁음, 순환 범위의 넓고 좁음, 순환 방식의 점진과 급진 정도에 따라 16가지의 정치 엘리트 유형을 개념화했다. <표 1>은 16가지 유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통합, 분화, 분화, 순환의 범위, 순환의 방식에 따른 4차원적 정치 엘리트 유형법의 특징과 종류

통합 (Unity)	분화 (Differentiation)	순환의 범위 (Scope of Circulation)	순환의 방식 (Mode of Circulation)	세부 유형
강(S)	넓음(W)	넓음(W)	점진적(G)	S-W-W-G
			급진적(S)	S-W-W-S
		좁음(N)	점진적(G)	S-W-N-G
			급진적(S)	S-W-N-S
	좁음(N)	넓음(W)	점진적(G)	S-N-W-G
			급진적(S)	S-N-W-S
		N(좁음)	점진적(G)	S-N-N-G
			급진적(S)	S-N-N-S
약(W)	넓음(W)	W(넓음)	점진적(G)	W-W-W-G
			급진적(S)	W-W-W-S
		N(좁음)	점진적(G)	W-W-N-G
			급진적(S)	W-W-N-S

통합 (Unity)	분화 (Differentiation)	순환의 범위 (Scope of Circulation)	순환의 방식 (Mode of Circulation)	세부 유형
	좁음(N)	W(넓음)	점진적(G)	W-N-W-G
			급진적(S)	W-N-W-S
	N(좁음)	점진적(G)	W-N-N-G	
		급진적(S)	W-N-N-S	

또 이 논리적 혁신의 적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이념형에 대한 실제 사례를 대응시켰다. 이 글에서는 특정 시기의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키르기스스탄, 시리아, 튀르키예, 튀니지, 리비아 등의 사례를 각각의 유형과 개별적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이 글의 한계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동시에 이들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들이기도 하다. 우선, 유형법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현실 변화와 연동된 논리의 측면에서, 만약 반례 내지는 신생 사례가 관찰된다면 이 유형법의 적실성은 크게 훼손된다. 특히 이 문제는 다수의 국가에 대한 공식적 비교를 진행할 때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분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측정의 기준이 달라지기에, 등가적 비교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에서 보편뿐만 아니라 보편에서 특수로의 사유의 방식 또한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사례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이 글의 시론(試論)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향후 특정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술한 문제의식 즉 유형법 고유의 한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타 유형으로의 전환과 동일 유형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서 이 시도는 사실상 무기력하다. 특히 타 유형으로의 변화의 '임계점(critical point)'의 설정은 매우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만큼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³⁶⁾ 즉 2022년 이전과 이후의 중국 정치 체제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임계점의 부재 혹은 설정의 시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유형법의 세부 구성 요소인 4가지 범주를 각각 지

36)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의 정치 구조와 행위자의 변화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임계점의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장환, “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양자도약?”, 『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pp.227-228을 참조 바람.

수화하고, 이의 변화를 추적하여 관찰하는 지수화(indexing)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미 다른 정치 체제관련 유형화 연구에서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이 유형법 접근의 기능적이 아닌 존재론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따라서 지수화와 결합된 유형법에 대한 논의와 정립이 향후 연구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정 국가 정치 엘리트의 전환과 관련하여 이 유형법은 매우 강력한 유용성을 보이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상술한 임계점의 문제와 더불어 초기 형태에 대한 설정을 들 수 있다. 즉 국가 형성 초기 과정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정치 엘리트 유형의 설정은 그 특정 국가 정치 엘리트의 향후 전환과 관련하여 분석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 전환의 방향에 대한 특정한 편향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전 세계 국가의 정치 엘리트 유형의 과학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철, “현대 카자흐스탄 엘리트 제도와 형성과정”, 『중소연구』, 제33권 제4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 문기홍,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미얀마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후퇴현상을 중심으로”, 『아시아 리뷰』, 제11권 제2호, 아시아연구소, 2021.
- 박철희, “아베 시대의 대전환: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일본비평』, 제13권 제2호, 일본연구소, 2021.
- 서경교,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Ⅱ: 논의와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 안소연,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튀니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중동문제연구소, 2022.
- 오종진, 강지선, “터키 공화국의 리더십과 정치문화변동 연구: 아타튀르크와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20권 제2호, 중동문제연구소, 2021.
- 이상수, “시리아의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지역과 정치』, 제5권 제2호,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 _____, “까다피 이후 리비아의 정치변동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권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 이성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정치참여인식 영향 요인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제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 이영형,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투표와 정치시스템의 변화: 낙관주의에 기초된 계획 오류”, 『한국과 국제

37) 이 문제의식은 Freedom House와 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등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관련 최근 연구는 Geddes, B., Wright, J., and Frantz, E.,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을 들 수 있음.

- 사회』, 제6권 제6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 주장환,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술 관료의 쇠퇴와 ‘일반 관료’의 부상”,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 _____, “다른 과정, 같은 결과: 중러 정치 엘리트 전환”,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 _____,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3호, 국제지역학회, 2021.
- _____, 연담린, “체제전환기 중·러 엘리트 정치 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른 과정, 같은 결과”, 『Analyses & Alternatives』, 제6권 제3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2.
- _____, “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양자도약?”, 『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 차태서, “분열된 영혼? 포스트-트럼프 시대 미국 정체성 서사 경쟁”, 『미국학논집』, 제54권 제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22.
- 최인아, “싱가포르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19.
- 현시내,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동남아시아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22.
- 홍성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략과 프레임”, 『한국사회학』, 제52권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8.
- Best, H. and Higley, J., eds., *Political Elites in the Transatlantic Crisis*, London: Palgrave, 2014.
- _____. and _____, “Introduction,”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 Blinder, A. *After the Music Stopped. The Financial Crisis, the Response, and the Work Ahead*. New York: Penguin.
- Burton, M. and Higley, J. “Elite Settl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no. 3(1987).
- Geddes, B., Wright, J., and Frantz, E.,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Higley, J. and Burton, M., *Elite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1996.
- _____. and Lengyel, G. eds.,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Theories and Analysis*,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 _____. and Burton, M. “The Study of Political Elite Transform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2001).
- Hoffmann-Lange, U. “Theory-Based Typologies of Political Elites,” in Best, H. and Higley,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Political Elites*, London: Macmillan Publisher Ltd., 2018.
- Joo, J. “A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and Its Transformation in China: From Ideocratic/ Replacement to Fragmented/ Reproductive Elites,” *Asian Perspective*, vol. 37, no.2(2013).
- Lee, H. Y.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Technocracy in Socialist China*, Berkeley and Los

-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Levy, Jack S. "Case Studies: Types, Designs, and Logics of Inferen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no. 1(2008).
- Lieberthal, K.,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London: W·W·Norton & Company, 2004.
- Mawdsley, E. and White, S. *The Soviet Elite from Lenin to Gorbache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Milner, M., Jr., *Elites. A General Model*, Cambridge: Polity Press, 2015.
- Ruostetsaari, I. "Social Upheaval and Transformation of Elite Structures: The Case of Finland," *Political Studies*, vol. 54, no. 1(2006).
- Zang, X.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technocracy in China: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ral committees of the CCP,"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al Politics*, vol. 15, no. 3(1999).

카자흐스탄 하원 공식사이트, <https://parlam.kz/ru/mazhilis/>.

카자흐스탄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s://www.election.gov.kz/rus/>.

Economic Intelligence Unit 공식 사이트,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2/>.

Freedom House 공식 사이트, <https://freedomhouse.org/>.

【 Abstract 】

Four 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Logic and Examples

Joo, Jang-Hwan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four-dimensional typology of the existing political elite. The four-dimensional typology of political elites basically means to classify political elites into four independent dimensions, such as integration, differentiation, mode of circulation, and scope of circulation. In other words, the world's political elite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teen subtypes. This paper explains the core logic.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each type are matched. In this way, the relevance of the new typology is being explo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l type of the new political elite types and the correspondence of the real type. This new typology will serve as a conceptual tool to explain the diverse real-world variations of political elites around the world.

Key Words : Political Elites, Four Dimensional Typology, Integration, Differentiation, Scope of Circulation and Mode of Circulation